

“밴드음악 폭발력 있어…보물창고 연 기분”

JTBC ‘슈퍼밴드2’ 심사위원 출연 유희열
실용음악·클래식 등 실력과 뮤지션 출격
지난 시즌과 달리 여성참가자들도 나와
윤상·윤종신·이상순·씨엘 심사

날로 높아지는 K팝의 위상에 힘입어 K-밴드도 세계적 조명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JTBC는 21일 밴드 음악 경연 프로그램 ‘슈퍼밴드’ 시즌2를 선보였다. 2019년 시즌1을 선보인 지 2년 만이다.

이번 시즌에는 윤종신, 윤상, 유희열, 이상순, CL(씨엘)이 심사위원으로 나서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한다.

실용음악과 K팝, 클래식, 국악, 록, EDM, 힙합, 뮤지컬, 재즈, 월드뮤직 등 각 분야 실력과 뮤지션들이 출격할 예정이며 지난 시즌과 달리 여성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

유희열은 방송 전 열린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과거에는 한 매체에 다양한 장르의 가수가 나왔는데 지금은 매우 세분됐다. 트로트, K팝 등 특정 프로그램이 있어 오히려 장르가 부재한 것 아닌가 느낄 수 있지만, 장르 음악의 질은 각각 높아졌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장르가 바로 밴드 음악이다. 밴드 음악은 곧 무대 음악이라 우리나라 음악계에서도 투자가 부족했다”며 “음악의 기본은 밴드 음악이다. K팝의 위상이 높아진 이후 유일하게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장르가 밴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도 처음에 밴드 세션의 건반 담당으로 음악을 시작해 내 음악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정도로 수준 높은 후배 뮤지션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마치 보물창고를 연 것 같다”고 감탄했다.

시즌1에 이어 출연하는 윤종신은 “유희열과 심사를 하면 ‘잘 되겠구나’ 싶었다. 내가 부족한 면을 많이 짚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다. 시즌1에서는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JTBC 밴드 음악 경연 프로그램 ‘슈퍼밴드’ 시즌 2가 지난 21일 첫 방송했다. 이번 시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윤상(사진 왼쪽부터), CL(씨엘), 윤종신, 유희열, 이상순.

나보다 말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 편하다”며 웃었다.

윤종신과 마찬가지로 전 시즌에 이어 함께하는 윤상은 “유희열과 윤종신, 두 사람이 방송에서 함께 심사하는 모습이 ‘슈퍼밴드’가 처음이라는 게 놀랍다”며 “둘 중 하나는 주먹을 날릴 수도 있겠다 싶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번 시즌 처음 출연하는 이상순은 “밴드로 음악을 시작했기에 ‘슈퍼밴드’ 시즌1도 흥미롭게 봤다. 이번에 프로듀서 자리를 제안받아 고민하지 않고 참여했다”며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악기 연주자들이 많아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유일한 여성 심사위원으로 합류한 씨엘은 “평소 밴드 음악을 좋아한다. 밴드에 다양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출연

하게 됐다”면서 “내가 그룹 활동도 해봤고 여성 참가자도 많으니, 유일한 여성 심사위원으로서 도움이 되고 싶다”고 출연 배경을 밝혔다.

연출을 맡은 김형중 CP는 “여성 참가자들이 함께하게 되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음악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여성 연주자들이 남성하고 비교해 실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없다. 오히려 훨씬 눈길을 끄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2년 전 첫 시즌에서 호피플라, 루시, 퍼플레인, 모네, 애프터문, 피플 온 더 브릿지 등 주목할 만한 밴드들을 발굴해낸 ‘슈퍼밴드’가 새 시즌에서도 새로운 스타 밴드들을 탄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빅마마’ 9년 만에 신곡 ‘하루만 더’로 돌아온다



실력과 여성 보컬그룹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빅마마가 9년 만에 신곡 ‘하루만 더’로 돌아온다.

23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빅마마는 24일 오후 6시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싱글 ‘하루만 더’를 발표한다. 2012년 발표한 디지털 싱글 ‘서랍정리’ 이후 9년 만의 신곡으로, 신연아·이지영·이영현·박민혜 네 원년 멤버가 다시 뭉쳤다.

‘하루만 더’는 빅마마의 특유의 감성을 간직한 R&B 발라드다. 임창정, 먼데이키즈 등 인기 발라드 가수부터 아스트로, 아이즈원, 슈퍼주니어 등 아이돌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들어 온 프로듀싱팀 에이밍(AIMING)이 작곡했다.

2003년 1집 ‘라이크 더 바이블’(Like The Bible)로 데뷔한 빅마마는 네 멤버의 풍부한 성량과 음색, 하모니 등 뛰어난 가창력을 내세우며 많은 인기를 모았다. ‘브레이크 어웨이’, ‘체념’, ‘배반’, ‘거부’, ‘여자’, ‘안부’ 등의 히트곡을 탄생시켰다. 당시 음반 시장이 극심한 불황기였음에도 ‘라이크 더 바이블’은 3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빅마마는 완전체 컴백과 함께 전날 음악 유튜브 채널 당고뮤직의 인기 콘텐츠인 ‘킬링 보이스’에도 출연해 히트곡 라이브를 메들리로 들려주기도 했다.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이지훈

14세 연하 일본인과 9월 결혼

가수 겸 배우 이지훈(42)이 오는 9월 14세 연하의 일본인과 결혼식을 올린다.

소속사 주피터엔터테인먼트는 22일 “(이지훈이) 일본 국적의 1993년생 비연예인과 9월 27일 결혼을 하게 됐다”며 “팬데믹 상황에 일본을 오갈 수도 없었고, 서로에 대한 확신과 굳은 믿음으로 얼마 전 혼인 신고를 먼저 했다”고 밝혔다.

이지훈은 소속사를 통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겠다. 많은 축하와 관심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1979년생인 이지훈은 1996년 1집 타이틀곡 ‘왜 하늘은’으로 데뷔한 뒤 ‘어린이왕자’라는 별명을 얻으며 많은 인기를 끌었고 최근에는 뮤지컬 배우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는 다음 달 초 신곡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뮤지컬 ‘엑스칼리버’ 캐스팅에도 합류했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연합뉴스



나주 ‘예인방’ 대표 김진호, 드라마서 연기 고수들과 한판승부

MBC 미니시리즈 ‘미치지 않고서야’

정재영·문소리 등과 열연

연극 무대와 TV 드라마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연기자 김진호(사진)가 MBC 새 수목 미니시리즈 ‘미치지 않고서야’(극본 정도윤, 연출 최정인, 제작 아이윌미디어)에서 정재영, 문소리 등 연기고수들과 한판 승부를 벌인다.

김 씨는 ‘미치지 않고서야’에서 한명정자 배정탁 상무 역을 맡았다.

이 작품은 정글 같은 직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n년차 직장인들의 치열한 생존기를 다룬 현실 공감 드라마다. 직장인이자면 한 번쯤 고민할 법한 ‘퇴사’, ‘이직’에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해고’ 위기를 헤쳐나가며 겪는 아찔한 오피스 생존담을 뼈대라 한다.



김 씨가 분한 생활가전사업부 배정탁 상무는 항상 본사의 동향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며 호시탐탐 사업부 넘버원을 노리는 탐욕의 화신에 가깝다. 직장생활의 대부분을 영업맨으로 보낸 그의 신조는 ‘하면 된다’이다.

김 씨는 “이번 드라마는 격변의 시대, 격동의 사회로부터 초라하게 쫓겨나지 않으려 오늘도 몸부림치는 우리 사회 중년직장인들의 뜨거운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라며 “코로나 19로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 일상을 돌아보고 유쾌하게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그동안 MBC 드라마 ‘주몽’, ‘제5공화국’, ‘이산’, ‘계백’, ‘구암 허준’, ‘옥중화’, SBS ‘시티홀’ ‘대물’, TV 조선 ‘최고의 결혼’, ‘바벨’, MBN ‘마성의 기쁨’ 등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맡아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였다.

특히 지난 1981년 나주에 (사)전문예술극단 예인방을 설립, 40돌을 맞은 올해까지 무려 350여회 무대공연을 펼쳐온 연극인으로도 유명하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